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연구

정 혜 영⁺

(인제대학교)

김 진 우⁺⁺

(덕성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드러나는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 가족갈등의 유형과 변화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모 3명 모두가 인터뷰 가능한 가족 10사례에 대해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이한 의사소통방식,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차이, 일상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촉발되고 있었고 촉발된 갈등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의 부족한 점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 반복되는 가운데 증폭되었지만, 가족의 소중함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해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발굴·적용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 갈등과정, 질적연구

1.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자의 출신국이 점차 다양화되고 이주자

⁺ 주저자

⁺⁺ 교신저자(email: jinwoo3535@duksung.ac.kr)

* 이 논문은 2009년 2월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갈등과정에 관한 연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들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의 노동자이거나, 생산업 종사자, 또는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 등에 해당하는데(이수자, 2004), 2007년 현재 전체 이주자 중 여성의 비율은 44.3% 정도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8). 이러한 여성이주자 중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시작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이들의 국적은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으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에 이주해 있는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최근 사전 서류제출요건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감소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2009년 9월 현재 29,833명으로, 가장 많다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 30,206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법무부, 2009). 아울러 2006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종사자 남성 8,596명 중 3,525명(41.0%)이 외국여성과 결혼하였는데 결혼대상여성의 67.9%인 2,394명이 베트남여성이라고 한다(통계청, 2007). 한편, 200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은 24.3세이며 남편은 40.0세로 나타나 15세 이상 차이가 나타나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 70% 정도이고, 결혼지속 기간은 5년 미만인 경우가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짧은 결혼지속기간과 함께 교육수준과 평균연령도 타 국가 여성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편이다. 또한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비율도 40.2%에 달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어머니와 관계가 힘들다고 하는 비율이 7.1%로 나타남으로써 필리핀, 한족여성과 더불어 베트남여성과의 국제결혼 가족에서도 고부갈등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비교적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으며 남녀평등 의식을 키워온(최병욱, 2006) 베트남여성들은 한국의 부계확대가족의 원리와 그 안에서 맺어지는 가족관계,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할기대 등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최근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베트남출신 여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의 특성상 가부장적 가족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시부모와 동거 시 의사소통문제, 문화차이 등으로 가족갈등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연구가 단지 수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의 내용과 향후 영향력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 초기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피해상황을 밝혀내는 가정 폭력이나 학대 등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내용(이금연, 2003; 한국염, 2004; 문옥희, 2004; 서소영, 2006)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문화인류학 분야에서는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여성의 선택과 딜레마(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필리핀여성의 갈등과 적응(윤형숙, 2004), 혼인이주자의 특성과 문제대응(이혜경, 2005), 국제결혼가정의 가족생활과 갈등에 관한 연구(한건수, 2006;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등이 진행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질적 연구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사 연구(신란희, 2005),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계망(임안나, 2005),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최금해, 2006; 구차순, 2007)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1)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은 흔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 개념화되기도 하고 '외국인 주부', '이주여성' 등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으나, 정부는 2006년 4월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 개념을 채택하였으므로(김이선 외, 2006: 6), 본 연구에서도 정부의 개념을 따르기로 하였다.

피해자적 입장을 드러내거나 가정생활의 어려움·갈등, 생활적응 등에 주목하고 있으나, 여성결혼이민자 외에 가족구성원의 입장은 잘 드러나지 않으며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 과정은 파악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는 단순히 언어차이뿐만 아니라 가족문화의 상이성으로 인해 겪는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가서는 향후 한국사회에서의 가족형성과 문화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의 하나인 여성결혼이민자만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갈등형성 및 해결의 주체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갈등 연구는 가족구성원 각각의 입장을 반영한 가족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갈등의 중심구성원인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어머니 각각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문화적응과정에서 겪는 가족갈등을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구성원들은 결혼 이후 겪게 되는 문화차이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2.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구성원들이 보이는 갈등양상과 대처과정은 어떠한가?
3.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구성원들은 갈등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가?

2. 이론적 배경

1)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특성

2006년 혼인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여성과의 혼인 건수가 2000년도에 95건이었던 반면, 2006년 현재 10,131건으로 짧은 기간 동안 100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의 사회·경제·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1991년 베트남이 자본시장을 개방하자 대만 자본의 진출과 함께 대만과 베트남 현지 결혼중개업자들이 개발한 중개시스템에 의해 베트남여성의 대만으로의 조직적인 결혼 이주가 시작되었다. 또한 전쟁과 남성의 해외이주로 인해 베트남의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베트남 남부 농촌 지역에서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만 했던 여성들은 어린나이에 가족의 권유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김현미, 2006).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들의 평균연령은 타민족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가장 낮으며, 1998년 한국의 국적법 개정 이후 대만 남성과의 결혼 추진을 위해 개발되었던 사설결혼중개 시스템이 한국의 결혼중개업자들과 연결되면서 5-6년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베트남여성과의 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이 강했던 베트남인들은 국제결혼

을 통해 베트남여성이 외국 남편과 함께 산다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1986년 '도이머이(Doi moi)'라고 불리는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면서 배타적이던 심리는 오히려 외호(外好)적으로 변했고, 이국적인 가구나 옷차림, 식생활, 취미생활, 그리고 외국인 남편까지도 많은 여성과 가정의 꿈이 되었다. 외국인 남편이 있다면 외국에 갈 수 있고, 자기 부모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가족들을 이민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국제결혼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하 밍 타잉, 2005).

이처럼 베트남여성들은 노동자로서 그리고 집안경제를 살리고 부모를 도우는 지원자로서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여성의 강한 생활력은 전통적으로 남성과 비교적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고 있었고 교역과 상업에 종사하면서(최병욱, 2006)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중국유교문화를 받아들인 소수지배층을 제외한 일반적인 베트남의 가족관계는 부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가족재산을 부부공산(夫婦共産)으로 관리하는 부부중심적인 체도를 유지해 왔고(유인선, 1989) 특히 남부지역은 부계와 모계 가족을 모두 친족범위에 포함시키는 형태를 나타낸다(하순, 2000). 그러므로 대다수 양변적 가족체계²⁾ 출신인 베트남여성들은 한국의 부계확대가족의 원리와 그 안에서 맺어지는 가족관계,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할기대 등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양변적 가족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부모부양 뿐만 아니라 가사 및 자녀양육에 있어서 남녀평등 의식이 강하여,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며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문화적응

문화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정신적 모태로서 개인이 계속되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며 개인과 집단의 접촉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LeVine(1986: 김옥순 외 공역, 2009 재인용, p80)에 의하면 문화는 “공동사회 안에서 지식, 도덕, 미의 판단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준과 의사소통의 도구들을 포함하는 공유된 생각의 조직”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한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언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방식, 규범, 생활양식 등을 통칭하여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둘 혹은 그 이상의 문화집단과 거기에 속한 개개의 구성원들이 접촉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화적·심리적 변화의 두 가지 과정을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고 일컫는다. 문화적응은 집단 수준에서의 사회구조, 제도 및 문화적 관습상의 변화와 개인적 수준에서 인간 행동의 여러 가지 측면이 변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화적·심리적 변화는 몇 년, 몇 세대, 혹은 몇 세기 등 장기간에 걸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주자들은 자신의 원 문화와 정착사회의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하게 된다(Berry, 2005).

2) 양변적 가족체계란 핵가족을 기초로 부계와 모계 모두를 인정하며 개인의 처지와 운영능력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성원들의 범위가 다르고 상황에 따라 변화도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이선 외, 2006).

Berry(1980)는 고유문화 정체성 유지와 정착사회와의 관계라는 두 가지 이슈에서 도출된 문화적응 전략으로써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를 제시하고 있다. 통합은 자신의 민족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착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동화는 자신의 민족문화 정체성의 유지보다 정착사회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태도이며, 분리는 정착사회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자신의 전통문화와 민족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태도이다. 그리고 주변화는 정착사회와의 상호작용도 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나 문화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태도이다.

기존의 문화적응 모델의 연구영역이 심리적·사회문화적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문화적응 전략과 태도에서 이주민과 원주민이 선택하는 것과 선호하는 항목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치·경제·사회·노동·가족·종교·사고방식 등 7개 영역으로 확장하여 '상대적으로 확장된 문화적응 모델(Relative Acculturation Extended Model: RAEM)'을 적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Marisol, Antonio, Maria and Pablo, 2007).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주민과 원주민 모두는 노동·경제 영역에서 '동화'를, 사회영역에서 '통합'을 선택하였으나, 문화·가족·종교·사고방식-와 같은 핵심영역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 이민자들은 '분리'를, 원주민은 '동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확장된 문화적응 모델(RAEM)은 집단내 갈등에 대한 예측과 이주민과 원주민에 대한 문화적 이해의 차이를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 주는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문화적응은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이 접촉하는 한 계속되는 과정이다. 서로간의 적응은 쉽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문화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화적인 갈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한다. 이와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사소통 능력은 특정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 심리적 적응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변인이다(Gudykunst and Hammer, 1988). Hall(1983)은 개인 간의 의사소통 형태를 기초적인 문화적 차이점과 공통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열쇠로 보았다. 즉,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그 문화를 이해하거나 그 문화에 적응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문화적응의 주요 이론적 접근 가운데 문화학습 접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의사소통맥락의 정도이다. '저맥락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언어적 의사소통에 많이 의존한다. 반면 '고맥락 문화'에서는 제한된 정보만을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주로 상황적인 단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애매한 방식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Gudykunst and Matsumoto, 1996; 정진경·양계민, 2004 재인용). 한건수(2006, p217)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한국인 여성에게서 기대되는 '알아서 행동 하는 것'이 외국인 부인과 며느리에게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로써 의사소통 맥락 중 '고맥락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가족(유명기, 1997)과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간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진행되어온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1992년 이후 한국남성과 결혼한 베트남여성의 문화적응에 대해 연구한 하 밍 타이(2005)에 따르면 베트남여성이 겪는 가정 내의 어려움으로 의사소통문제, 문화 및 생활습관의 차이, 호적문제, 자녀교육문제, 남편폭력, 시어머니

와의 갈등 등이 집약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와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하나(2007)는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통합유형, 사회적지지 그리고 가계 월소득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주변화유형만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통합·동화·분리·주변화의 4가지 문화적응유형 중 통합유형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주변화 유형을 가장 적게 나타내었다.

3) 가족갈등과 갈등관리

가족갈등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결핍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가족구성원들 간의 역할이나 이권, 관심 등 이해관계의 차이에서도 나타나며(김양희, 1986), 부부나 부모-자녀관계의 틀 안에서 발생하거나 친족갈등 혹은 고부갈등처럼 가족범주 내에서 상호 연계되어 발생하기도 한다(변화순·장혜경·김혜영·전영주·정재동·구선영, 2005). 부부간, 부모자녀간 갈등이나 성역할의 차이와 같이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현상을 자원이나 권위의 불평등한 분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갈등이론의 핵심이다.

결혼생활에서 많은 갈등요인이 존재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요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해 가는 방법이다. 경제적 문제, 시부모와의 갈등 등 가정 내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갈등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갈등국면을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김영희와 정선영(2007: p68)은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이 그 갈등 상황에 대응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양식을 갈등대처 방식”이라고 하였다. 감정이입, 적극적인 경청, 융통성, 동의와 승인을 유발할 수 있는 유머감각은 갈등 자체가 결혼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처방식이 된다(Gottman, 1994). Killmann and Kenneth(1975)는 갈등양식 모델에서 갈등관리의 두 가지 차원으로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려는 ‘독단적 차원’과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협력적 차원’을 제시한 후, 개인의 독단성과 협력성의 정도에 따라 회피, 조절, 경쟁, 제휴, 타협으로 구분하였다(노영주·서동인·원효중 역, 1995 재인용).

이선미와 전귀연(2005)의 연구에서는 아내의 경우 남편에 비해 회피형의 갈등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고 이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고 하였으며, 권오실(1995)은 부부갈등에서 남편은 이성적 대처와 회피를, 아내는 감정표현, 기분전환, 의견강요 등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김오남(2006)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을 설명해주는 영향력 있는 모델과 그 결정 요인을 규명하였는데 네 가지 모델 - 자원모델, 성역할모델, 관계성모델, 문화모델 - 중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으며 문화정체감에서 분리의 태도를 갖는 경우에 대한 설명력은 문화모델이 적절하다는 것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권력, 분리에 대한 태도, 남편의 성역할 태도 등이 부부갈등을 야기시키는 주요 변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손은록(2004)은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요인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갈등요인은 성적관계, 경제적 문제, 의사소통장애, 사회문화적요소 등이며 이러한 갈등요인에 대한 대처행동은

'소극적 회피'가 가장 선호되었고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결혼생활과 가족 내에서의 갈등은 일반적이고 복합적인 경쟁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가족내부에서 발생한 구성원들 간의 대립과 이익의 상충에 대해 가족은 끊임없이 동태적 균형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타협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갈등이 반복된다고 반드시 가족해체가 따르는 것은 아니며 가족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Sprey, 1979)는 관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갈등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이 결정되며 변증법적 과정으로서 그 처리와 대응의 단계가 중요한 것이다.

3. 연구방법론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구성원들이 겪는 가족갈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질적연구 패러다임에 기초해 있다. 질적연구는 연구 분야가 양적연구를 수행할 만큼 선행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지 않아 탐색적 연구가 필요할 때 유용하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겪는 가족갈등에 대해 가족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갈등을 둘러싼 자신의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드러내는 연구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겪는 갈등과 갈등대처를 둘러싼 가족구성원의 상호관계를 질적연구를 통해 폭넓게 이해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범위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구성원의 갈등에 관한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상적 측면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겪는 가족갈등의 문화적 측면의 이해를 고려할 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를 선택하기 어려우므로, 일 국가로 한정하여 베트남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으로 국한하였다. 시간적 측면에서는 가족갈등의 과정에 대한 연구라는 점과 문화적응·언어습득 시간을 고려하여, 결혼생활이 너무 짧은 1~2년차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은 제외하고 만 2년이 지난 3~6년차 가족의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모'로 한정하였다.

2) 표집방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 method) 중 기준표집방법과 눈덩이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지속정도과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및 시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면접가능한 가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준표집방법을 사용한 것이며,

기존 피면접 가족으로부터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가족을 소개를 받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적절한 사례를 소개받았다는 점에서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참여자들은 부산, 김해, 진주, 서울, 청주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지역적 제한성을 갖지 않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 서울경기충북지역 소재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소개받고 여기에서 본 연구에 참여의사가 있는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소개받았다.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 나이는 26.6세이며 남편의 평균나이는 43.8세로써 17.2년의 차이가 있으며 모두 첫돌 이상 된 자녀가 있었다. 연구참여가족 중 아홉 사례는 결혼기간이 2년 이상, 5.7년까지이며, 사례10은 만 2년이 되지 않은 22개월이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려로 가족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극단적 사례(extreme case)로서 표집대상에 포함하였다.

질적연구에 기초해서 취할 수 있는 자료수집방법으로는 크게 면접, 참여관찰, 문헌조사 등 3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면접과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상황적 맥락 안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연구자는 가능한 한 탐색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험들을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그려내는데 초점을 두었다. 면접직후 필드노트(field note)에 면접과정에서 떠올랐던 주요 아이디어와 연구 참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기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딩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메모(memoing)를 함으로써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더불어 분석과정에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면접내용의 대강을 작성하는 것은 상기의 목적 외에도, 면접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 또는 주요한 추가질문사항들을 적시함으로써 다음 면접의 지침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Miles and Huberman, 1994).

본격적인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질문과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경험을 통해 본 조사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7년12월부터 2008년2월까지 2사례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본 조사는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사전조사 사례를 제외하고 10사례(총30명)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현장조사과정에서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면서 만 2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았는데,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베트남어 교실에 참여하면서 친분을 쌓았던 분들의 소개,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친구소개, 그리고 타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소개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반구조화된 면접은 여성결혼이민자, 그 남편과 시모 모두에게 각각 적용되었는데 각각 1시간에서 1시간반 정도 소요되었으며 한꺼번에 면접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2~3차례 방문을 거듭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연구자와의 언어적 장벽 때문에 심층적인 면접이 어려운 경우에 베트남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통역사가 면접진행과정을 조력해 주었다. 자료수집과정에서 질적연구에서 준수되어야 할 윤리적 문제의 개별적 내용이 적용되었는지를 절차별로 점검하였고, 질적 연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파악된 연구결과가 진실인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진실성(true value), 맥락을 배제한 가정이나 일반화의 원칙보다는 특정상황의 타 사례에의 적용을 탐색하는 적용가능성, 일관성과 중립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점검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계 전문가 2명으로부터 연구진행과정에서 자문을 구함으로써 연구자의 자의

적인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노력하였다.

3) 자료분석

면접자료는 사전에 면접동의서를 받을 때 연구참여자로부터 녹취허락을 함께 받은 후 디지털음성 녹음기로 녹취하였고, Microsoft Word로 옮긴 후 질적자료 분석 컴퓨터 프로그램인 Atlasti (5.2 versio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tlasti에 입력된 자료는 먼저 사례단위 내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한 코딩작업이 시작되었고 중요한 개념으로 범주화시켰다. 이후 가족단위의 사례가 첨가될 때마다 기존에 코딩해 놓은 내용들을 재음미하면서 추가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존 코딩체계를 재수정하여 개념화된 범주들이 지속적으로 나선형식 변화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마지막 사례에까지 적용되었으며 전체적인 코딩과 범주화작업이 본 연구의 주제와 맥락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자기반성적 성찰은 연구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면접내용이 충분히 그 의미를 드러내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반복되었다.

4. 연구결과

1) 문화차이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이해

이문화 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룬 구성원들은 가족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며 서로의 문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먼저 가족구성원들의 문화적응과 갈등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들의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코딩내용과 이를 추상화한 핵심범주와 주제의 도출과정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문화차이에 대한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이해

코 드	코드묶음	핵심범주	주제
(아내)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함	의사소통 애로 및 소통이 나아지면서 갈등 증폭	의사소통 애로로 답답해 하면서도 나름대로 노력함	문화차이로 서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 잉태
(아내)이해하지 못한다고 구박받음			
(아내)해야 할 일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맞음			
(아내)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더 짜증남	아내와의 소통부재 및 남편의 노력부족		
(남편)아내의 의식세계를 알 수 없어 답답함			
(남편)계속 질문 받는 상황이 답답함			
(남편)베트남어 배우는 것 관심 없음.	답답하면서도 가르치려고		
(시모)말이 안 돼서 대면부터 막막한 느낌			

(시모)도망갈까봐 한국어교실 보내는 것 꺼려함	노력함		
(시모)시장 등 데리고 다니면서 언어교육 시킴			
(아내)집안일 하지 않는 남편 이해 못함	하늘같은 남편, 남편아래 있는 아내	가부장적 가족문화로 인한 문화충돌	
(아내)TV의 멋진 남성과 다른 내 남편: 속았다			
(아내)남편은 높은 사람, 나는 낮은데 앉는 사람			
(아내)누가 하녀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가사 일은 아내책임		
(남편)아내 버릇 나빠질까봐 가사노동 안함			
(남편)어머니가 도와주고 있으므로 나는 가사일 안함	서열적 가족문화와 남자우위 고집하는 시모		
(시모)당연히 봉양을 받아야지			
(시모)사사건건 가르치면서 수발까지 해야 하는 처지			
(시모)아들을 낳았을 때 '본전'뺐었다는 생각			
(시모)아이 잘못 키우면 넌 쫓겨난다	가르쳐주지 않고 야단치는데 대한 야속함		
(아내)빨래, 설거지 등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나무라는 시어머니 원망			
(남편)일하기 싫어서 대충대충하는 아내	간섭하는 아내의 역할에 불만		일하는 방식의 차이와 이해부족
(남편)술은 적당히 먹는데 잔소리하는 아내			
(시모)게으른 나라 사람이어서 부지런하지 않음	이해노력 보다는 게으르다는 선입견		
(시모)시켜도 잘 못하는 며느리가 답답			

(1) 의사소통의 어려움

국제결혼은 이미 언어적 소통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몸짓, 상징, 얼굴표정 등을 읽음으로써 의사소통이 상호간에 원활해지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는데 상대의 의미를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나아가 언어소통이 다소 원활해지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경감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갈등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① 여성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어로만 소통하는 가족 내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다. 많은 이야기를 남편이 나 시모가 해 주지만 정작 알아들을 수 있는 양은 그리 많지 않고 또 그마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모는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말로 뭔가를 계속 시키면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기대하고 요구하면 며느리는 당혹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초기의 상황들은 사례에 따라서는 시모 또는 남편이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 주면서 결혼생활에의 연착륙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귀'를 조금씩 알아들으면서 시모

의 잔소리와 간섭이 지나칠 때면 짜증이 나고 그로 인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시어머니, 생각보다는 괜찮고 처음에는. 왜냐하면 처음 왔을 때 시어머니 잘 해줘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런데 애기 낳고부터 그때부터 제가 해요<중략> (처음엔 문제)없었어요. 왜냐하면 말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도 문제없고, 근데 한국말 배우고 나서 좀 들리니까 짜증나고..(비엣³⁾, 31-35)

한편, 사투리가 갈등의 주변적이고 부수적인 요인으로 취급되기 쉽지만,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과소평가하기에는 갈등원인의 일정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베트남에서 결혼한 후 입국시점까지 한글을 조금 배우고 들어오는 여성은 간단한 인사나 몇몇 명사 정도는 알고 있는 수준인데, 70여년을 농촌에서 생활한 시어머니와의 소통에는 사투리라는 또 다른 장벽이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도 서툰 상황에서 사투리까지는 해석이 불가능하여 주어지는 역할수행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게으르다'는 오해까지 받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 와서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사투리도 심하고, '라면'도 어머니는 '라멘'이라 하니까 무슨 뜻이냐고 묻고, '뚜껑'도 '따까리'라 하니까 어떻게 알아들어요? '밥, 반찬 데워라'를 '밥 따사라'. 책이나 사전에서 찾을 수도 없고 사투리를 어떻게 찾아요?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 살 때는. 그래서 안 하고 있으면 게으르다 그러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비엣³, 203)

② 남편

남편 역시 초기에 대화가 되지 않아서 문제발생 시, 아내가 '싫어'라는 한 마디만 하면 '설득'이나 '타협'은 해 볼 수도 없어서 힘들었다고 한다. 일 년 정도 지나면서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더라도 여전히 속 깊은 대화는 나눌 수가 없어서 아내의 의식세계를 알기 어려웠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상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해지지만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단어를 쓰지 못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질문을 하면 남편은 대화를 단절하며 아내를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한국남편들은 나이도 많고 일 때문에 바빠서 베트남 언어나 문화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한국어로 시집온 아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다.

그거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시작도 안 해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만은 안 쉽더라구요. 일하고 하니까, 힘들고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중략> 지는 한국에서 사니까 마누라가 한국어를 배우는 게 더 빠를 것 같던데요.(남편7, 91-95)

③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와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대면하는 순간부터

3) Viet, 베트남 전 인구의 89%를 차지하는 민족이며 낌(kinh)족이라고도 함.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익명성을 고려하여, 베트남의 대표적인 민족명으로 본명을 대신하였다.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느낌이 들었으며, '빙어리'라고 표현할 만큼 답답하였다고 한다. 한편,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며느리가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기피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속내를 드러내었다.

동서들이 와도 같이 앉지도 않고... 며느리는 말을 못하니 못 어울리는 거 같애. 내 그래 생각했어.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기가 차더라고, 말을 못해도 같이 어울려야 하는데 방에 딱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시모7,414-4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자신의 며느리가 도망갈까 봐 걱정이 돼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나 사회단체의 한국어교실에 보내는 것을 꺼렸으며, 보내더라도 귀가시간을 지키도록 하거나 낮선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식으로 신경을 썼다고 한다. 사례4의 경우는 시누이가 매일 집으로 방문하여 한국어교육을 담당하였고 시어머니는 시장으로 데리고 나가 현장학습을 시켰다. 사례6, 7, 8은 집에서 혼자 공부하거나 학습지를 받기도 하였으나 실력향상이 되지 않다가 방문교사의 지도를 받은 후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2)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차이

오랜 기간동안 유교문화와 결합된 한국가족의 가부장적 성격은 갈등이 생겼을 때 직계가족의 질서원리인 장유유서가 고부간에 작용하여 며느리는 연하자, 아랫사람으로서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사회윤리를 강요받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가족관계학회, 1999). 특히 경남지역에서의 사례는 유교적 서열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어 서울, 청주, 조치원 지역보다 부부간 서열이나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① 여성결혼이민자

유교문화권에 속하면서도 베트남 일반대중은 전통적으로 강했던 여성의 권위를 인정해 왔고,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적극적인 여성참여 요구에 따라 베트남의 여성들은 직접 전쟁에 가담하는 한편 후방에서는 생산의 주역이었다(정연식·황연주, 2004). 이러한 역사적·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베트남 여성이 가부장성에 길들여진 한국남편의 의식과 태도를 이해하기는 힘들며 그것에 반발하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결혼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베트남과는 달리 가사와 자녀양육은 늘 아내의 몫이었고, 베트남에서 보았던 텔레비전 속의 자상하고 멋진 한국남성은 온데간데없고 불만이 커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에 대한 종속성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식구들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을거야 라고, 차도 있고 즐겁게 살거라 생각했어요. 살다 보면 근데 맨날 자기는 높은 사람, 나는 항상 낮은데 앉는 사람이야. 처음에는 남편 따라했는데, 요새는 안 따라 합니다. 각자 마음대로 합니다.(비엣4, 187)

비엣3은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매일 집에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만을 강요당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하녀'에 비유하였다.

많이 알아야 살고 싶죠. 여름에는 계곡 놀러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겨울에는 찜질방 가고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재미있죠. 맨날 집에 있어, 애기 보고, 밥하고, 하녀처럼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비엣3, 208)

② 남편

남편들은 국내에서 신부감을 찾을 수 없어서 국제결혼을 선택한 농촌이나 도시의 저소득층 남성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국제결혼을 선택한 만큼, 베트남의 양면적 가족문화는 이해하지 못한 채 가부장적 권위를 통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심정에서 가사노동을 기피하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면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더불어 시어머니가 함께 살면서 아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제지시키기도 하여 남편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눈치를 보면서 가부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참여자 중 남편3은 결혼 전에 오랫동안 혼자 생활했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익숙하지만 아내의 버릇이 나빠질까봐 돕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남편2,10⁴⁾을 제외한 모든 남편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아내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나한테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언젠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애기 낳고 나서. 나한테 누워있다고 안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 마. 니가 하는 거다'라고.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이 잘 못 된 건지는 몰라도 방법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동생한테 뭐라 하면 혹시 오해라도 할 것 같고, 어렵더라고요. 그게.(남편7, 285)

③ 시어머니

한국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게 되면 당연히 봉양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책임을 며느리에게 넘겨주려 한다. 그러나 한국의 생활방식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여 봉양받기는커녕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히려 수발까지 해야 하니 사사건건 마음에 드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서운했지. 며느리가 왔으면 내 옷 하나라도 빨아 줘야 할 텐데, 자기 수발까지 하라고 하니.

아들하고 벗어서 많으면 세탁기에 넣으면 되는데, 세탁기, 크거든 식구가 많으니까, 조그만 거 그것 가지고 해당이 안되잖아. 농촌에 일꾼들 옷이 많잖아. 그러니까, 세탁기도 큰 걸 샀는데, 조그만 그걸 어떻게 돌릴거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성났다.(시모3, 119)

(3) 일상생활방식의 차이

①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국적을 떠나서 며느리라는 사람은 자신이 수행해야할 역할을 당연히 알고

4) 남편2, 10의 경우도 어머니가 동거하거나 매일 방문하여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할은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있다고 생각하여 문화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집안일은 며느리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의식주와 관련한 생활방식차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이에서 기인한 가전제품 사용까지 모두 배워야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게으르다고 하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고 하였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한국사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 안 돼. 한국 사람은 빨래 삶잖아요? 베트남 사람은 안 삶아요. 어머니 밭에 갈 때, '빨래 다 삶으면 행귀서 날어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얘기안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선 수건 몇 개도 안 날어줬다고 게으르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트남에선 수건을 냄비에 넣고 삶는 거 전혀 없어요. 몰랐거든요. 얘기도 안 해주고, <중략> 우리 남편이 마누라 데리고 와서, 어머니에게 '많이 가르쳐 줘야 돼요. 문화 다르니까 많이 가르치고 많이 시켜야 알아요.' 했는데 어머니 잘 안 가르쳐 줘요. 이렇게 이렇게 알아서 해라고만 해요.(비엣3, 82-93)

② 남편

베트남과 한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 지리적 조건에 따른 기후차이, 가옥구조의 차이로 청소방식이 많이 다르며 의류의 재질도 달라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세탁이나 취급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른 가족들보다는 이런 배경을 아는 남편들도 생활하면서 자신이 불편하기 때문에 문제 삼거나 아내가 게으르다고 매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략).. 일하기 싫어서 하는 것 모양, 그냥 대충대충하는 걸로 생각하고 하는데 그러고 쓸고 닦고 그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문화가, 한국 사람들은 뭐든 닦고 쓸고 깔끔하게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안 해요. 잘. 내가 그런 게 싫으니까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치우고 그러는데 지금은 알아서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남편10, 290)

베트남남성들이 마약, 음주,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책임한 가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싫어서 국제결혼을 선택한 베트남 아내는 모두 술과 담배, 늦은 귀가는 절대불가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에 한국남편들은 음주에 대하여 많이 관대하고 반드시 술을 먹을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마시는 것이고 적정량만 먹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반응이었다.

③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아침에 못 일어나고 잠을 많이 자는 며느리'가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청소와 음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게으른 나라 국민이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민족성에 대한 감정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휴, 살림 안 살다 와서 그런지 그릇이고 뭐고 엉망진창이고 부엌이고 어디고, 너무 심했어. 개가 살아도 그러고는 안살겠다 싶을 정도로. 말해 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중략> 게으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어서 부지런하지는 않아요.(시모2, 99-111)

처음에 말도 안통하고 일도 모르는 며느리를 맞이하여 답답하고 기막혀하며 빨래를 분류하고 삶는

것, 청소순서, 한국음식 조리법 등을 가르쳐보지만 언어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전달력이 떨어지게 되어 며느리는 제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나마 외국인 며느리가 자신처럼 깔끔하지 못하고 시켜도 잘못하는 것이 답답하여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이 흐르고 계속 보고 배우면 잘 하게 될 것이라는, 포기에 가까운 희망까지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래 내가 '쓸고 닦아야지 그냥 놔두면 어떡해' 그렇게 말하면, 그냥 있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해. 걸레 빨아서 닦는 걸 안 해. 뭐하다 보면, 걸레 가지고 와서 발로 그냥 썩- 문질러. 그래도 뭐 설마 어느 날 때가되면 하겠지 싶어서. 그리고 있으니까.(시모5, 114)

2) 갈등양상 및 대처과정

의사소통의 애로,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차이 그리고 일상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상대방에 대한 실망과 좌절, 걱정과 분노가 가족구성원 간에 교차되고 있음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문화차이로 인해 생겨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은 어떤 양상이며 각자의 대처방식과 적응과정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부갈등과 고부갈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며, 코딩을 통한 핵심개념 도출과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갈등양상과 대처과정에 대한 이해

코 드	코드묶음	핵심범주	주제
(아내)남편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소리지름	서로에 대한 주장, 감정표현을 굽히지 않음	부부가 서로에 대해 맞서 싸우고, 외부에 의해 중재	부부가 맞서고 회피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갈등해결 모색
(아내)소리지는 것이 너무 두려움			
(아내)친정 경제지원 약속어긴 남편에 실망			
(아내)남편에 대한 물리적 폭력 행사			
(아내)이웃 또는 결혼중개업체에서 중재나섭	갈등에 대한 중재적 노력		
(아내)시모가 아이돌보기, 생활교육 시켜줌	갈등상황에 대해 서로가 회피하거나 갈등을 드러내지 않음	갈등이 잠재해 있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 내재	
(아내)울기도 하고 야속하게 생각함			
(아내)친구에게 어쩔 수 없이 하소연함			
(아내)남편 마음에 맞추려고 애씀			
(남편)무시하고 대꾸하지 않음	아내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태도와 결행, 남편의 수동적인 동조	아내의 적극적 대처와 이에 대한 남편의 이해가 조화	
(남편)세월이 약이다			
(아내)친구집으로 가출했다가 돌아옴			
(아내)남편이 폭력 세 번 행사하면 이혼한다			
(아내)안되면 베트남으로 돌아갈 결심 또는 실행	남편의 이해 및 친정부모의 조언이 도움됨		
(남편)아내행동에 대해 달래고 안아줌			
(남편)베트남까지 찾아가 사과함			
(남편)친정부모가 화해하고 잘 살아라고 조언	시모가 며느리를 자기	시모 주도의	고부가 서로
(아내)말도 잘 못하는데 시모가 구박만 함			

(아내)한국방식을 강제로 요구하고 잔소리함	방식대로 교육시키려 함	고부관계에 대해 머느리 불만, 차츰 해결	이기려하기보다 이해하고 타협하여 갈등해소 모색
(아내)농사일 잘 모르는데 하라고 강요함			
(시모)한국에 왔으니 한국사람되어야 한다			
(시모)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함			
(아내)화났을 때 사과하면 다 풀어짐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힘		
(시모)세월이 지나면서 머느리를 딸처럼 대함			
(아내)간접적으로 자신의 홍보는 시모에 대해 분개	바깥에서 자신을 홍보는 시모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이를 이해 못하는 시모	하소연보다는 직접대화가 효과적	
(아내)화가 나서 베트남으로 갈 것을 결심			
(시모)밖에서 하소연한 것을 화내는 머느리 태도불쾌			
(아내)서로 이야기하면서 화 품	직접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아내)출산, 양육, 가사노동- 혼자서 힘들어	직접 대화보다는 아들에게, 남편에게 하소연	남편의 중재적 노력에 기대, 결국 분가	
(아내)어머니 생활방식 맘에 안들어			
(시모)야단치면 애 버리고 도망갈까 봐...			
(시모)내가 말 못하니 너가 좀 타일러	분가를 통한 고부갈등 해소		
(시모)같이 사는 게 부담- 분가권유			
(남편)두 여자의 권력 사이에서 힘들다			

(1) 부부갈등양상·대처과정 및 변곡점

부부갈등상황에서 대부분의 남편은 아내보다 월등히 나이가 많으므로 아내를 애처롭게 생각하여
참는 경향을 보였으며, 아내는 약한 모습이나 무조건 참기보다는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오히려 남편보
다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여기에는 맞서서 싸우기, 갈등회피하기, 아내가 강하게 대처하기 등
으로 나타났다.

① 팽팽한 대립과 제3자의 중재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있지 않은 결혼생활에서 남편의 큰 목소리는 두려움의 대상이며 아내는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오해까지 하게 되고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면
서, 비엡2의 경우 남편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아내의 짐을 싸서 내쫓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고,
아내는 이에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에 이웃의 중재와 결혼중개업체의 통
역으로 갈등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6개월 동안 부부간에는 웬만큼 일상대화
가능해졌고 남편의 불같은 성격을 이해하면서 아내는 견딜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 와서 한 번 있었는데요, 같이 살았잖아요? 신랑은 길에 나가라했는데요, 그래 가방도 밖에 놔
두고, 밖에는 어디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많이 화났어요. 신발가지고 (신랑)얼굴을 때려서 피났어
요. 그래서 신랑은 키 문 잠갔어요. 집에 그래서 못 들어왔어요. 그래 있다가 옆집에 아저씨 있잖아요?
한국 아저씨 집 같이 빌려주고, 신랑보고 열어주세요. 들어가라고... 아침에 사무실 여기 들어 온 (결
혼중개)회사 있잖아요, 거기 가서 통역해주고.(비엡2, 108)

② 직접적 갈등해결 회피

남편의 술, 담배문제뿐 만 아니라 아내가 힘들어도 도와주지 않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조절하지 않은 채 아내만 나무라며 집안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갈등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편들은 아내가 갈등 상황에서 소리 지르거나 대들지 않고 말없이 울고 참아버리기 때문에 별로 싸우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반면에, 아내들은 남편이 문제해결을 위해 의논하지 않고 소리만 지르니 너무 힘들고 외로웠다고 표현하였다.

자꾸 우니까 참다가 나중에 한 번 풀었어요. 큰 소리로.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 알아 들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 말로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고모도 계시고 형님, 어머니도 계시는데, 친구 갔다 와서. 자기 잘못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날부터 남편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성격이 이렇구나.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때리하겠구나.(비엣4, 34)

남편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아내의 잔소리를 무시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 상황을 회피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남편이 소리 지르고 싸울 때면 아내는 눈물로 마음을 추스르거나 가출유혹에 빠졌다고 하였다. 주변에 있던 친구가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도망가서 혼자 돈 벌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 나가더라도 임신을 한 상태이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생각으로만 그치게 되었다.

③ 아내의 강한 대응과 남편의 이해

이 유형은 아내가 적극적으로 남편의 물리적 행사에 강하게 대처하여 갈등을 드러냄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쪽이다.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폭력을 행사하면 친구 집으로 가출했다가 돌아오거나, 남편과의 언쟁 중에 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아내가 강하게 대처를 하여 갈등을 무마시키려 하였다. 그러한 아내의 강한 대처는 단순히 소극적 저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 자체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남편의 폭력에 대해 강하게 맞대응할 때 갈등이 증폭되기보다는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고 안아주고 달래주면서 아내의 강경대응이 누그러지기도 하였다.

한번 때리고 사과하면 괜찮아, 두 번도 용서해 줘, 세 번 때리면 바로 이혼해요. 저는 세 번 다 했어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끝났어요. 저는 안 무서워.(비엣9, 77)

(2) 고부갈등 양상·대처과정 및 변곡점

고부갈등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3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① 시모 주도 - 며느리 불만 고조

시모4는 '한국에 왔으니 한국 사람이 되어야한다'라는 전제와 '며느리가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잘 가르치며 살아야한다'는 생각 때문 한글에서부터 예의범절까지 철저하게 가르쳤다. 그러한 과정

에서 며느리의 반항도 있고 아들과의 마찰도 생겼다. 시모1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던 초기에는 갈등이 없다가 며느리가 출산한 후부터 간섭과 잔소리가 늘어나 최근에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외면하고 있어서 남편도 분가 외에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시모3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며느리에게도 농사일을 강요하여 갈등을 많이 겪었고, 아들과 딸, 남편까지 며느리 역성만 들어서 속이 많이 상했다고 하였다. 비엣3의 진술은 당시 고부갈등 상황과 대처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때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얘기해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말은 안되고 남편한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서로서로 마음이 안 좋죠. 그땐 시내 나오면 시골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늦게까지 있다가 우울해져서 밥 안 먹고 있으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집에 가기 싫다고 얘기하면 '조금만 참아라, 엄마도 잘 해주잖아' 그러면 '따로 살아, 난 못살겠어' 위협하고 '나 도망간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남편이 알았어 조금만 참고 기다려 그러고...(비엣3, 134-135)

② 외부에 호소 - 자존심 상한 며느리

이 경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불만사항을 직접 야단치지 않고 아들에게 얘기하거나 외부에 나가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동년배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며느리에 대한 험담으로 연결되고, 며느리는 자신의 베트남 친구로부터 간접적으로 자신의 흥에 대해 전해 들으면서 갈등이 촉발되는 경우이다. 비엣6의 경우, 한국입국 후 바로 임신을 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뿐만 아니라 아침식사를 꼭 챙겨 먹는 한국의 음식문화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직접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외부에 나가서는 자신을 험담하는 것이 화가 났던 것이다.

처음 와서 제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니까, 남편 밥도 안 차려 주고 인사도 잘 못하고 하면, 시어머니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 며느리가 아침에 안 일어나고, 밥도 안차려준다'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직접 뭐라 하면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가 화나요.(비엣6, 80-81)

그러나 억울한 며느리의 화난 모습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한편으로는 그러한 며느리의 모습에 서운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국제결혼까지 한 처지에 다시 헤어지기 보다는 함께 잘 사는 것을 보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맞춰주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하니깐 내가, '안 살 거라면 가자' 그리고 결혼회사에 데리고 갔잖아요. 세상에 어지간해야지. 내가 다른 것을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애 안 봐주고, 자기 험담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못 살아 하데, 자기는 속이 좁아서 못 살아' 하데. 그래 '니가 못살았다면 사무실로 가자, 니가 못살면 보내 주께'하고 데리고 갔잖아요.(시모6, 286)

③ 신경전 벌이기: 제3자인 아들(남편)에 호소

위의 두 가지 고부갈등 양상과는 달리,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직접 맞서지 않고 타이르거나 참으며

때로는 아들에게 하소연하였고, 며느리도 직접 맞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혼자 어려움을 감내하고 참다가 남편에게 하소연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자 남편인 한국남성의 입장은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인터뷰 중에 ‘두 여자의 권력 속에서 힘들었다’고 표현할 만큼 양쪽의 눈치를 보며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힘들었다고 하였다.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애 엄마가 딱 얘기할 처지가 되니까 딱 부딪히는 거예요. 엄마는 그거예요. ‘나의 권한을 넘어서려는 건가. 나의 구역을 침범하려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가 잘못 된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애 엄마는 부모님한테나 어른들한테 대하는 건 잘해요.. (중략)..애 엄마는 어머니하고 안 좋았다가도 손님오고 그러면 집사람이 다해요. “어머니 뭐 해요? 다 했어요.” 청소 짝 하고~ 손님이 가면은 안 해. 손님 가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할 것만 하고 안 해. 애기도 안하고.(남편8, 274-275)

3) 갈등의 상호작용 내에서의 변화 및 적응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들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각각의 구성원이 생각하는 자신의 변화 및 적응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3>은 수집된 자료에서 갈등의 상호작용 내에서의 변화와 적응에 관한 핵심 범주와 주제의 도출과정에 관한 것이다.

<표 3> 갈등의 상호작용 내에서의 변화와 적응에 대한 이해

코 드	코드묶음	핵심범주	주제
(아내)나는 자기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 때문에 사는 거야	현실의 이해관계 직시	현실이해하고 한국에서 헤쳐나가야 할 과제를 이해하려는 아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고 포용함
(아내)베트남 송금보다는 애 교육비가 중요			
(아내)한국 남자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자신의 현실 수용 및 적극적 대처 결심	아내	
(아내)속상하면 울고 잊으려 함			
(아내)나도 한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남편)아내에 조금 더 관심기울여야겠다는 결심	아내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함	아내에 대해, 가족의 갈등에 대해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남편	
(남편)베트남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함			
(남편)남자가 먼저 숙이는 것을 배움			
(남편)우유부단하기보다는 갈등해결에 노력해야	가족에서 자신의 역할 재확인		
(시모)아무진 거, 사람 나름 아니겠나...	다양성 인정	자식위해 양보하는 시모	
(시모)아들혼자 사는 거 어찌보겠습니까	자식행복 기원		
(시모)마음 비우고 살아감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1) 여성결혼이민자

베트남보다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로 유입된 여성결혼이민자는 성별분업을 강조하는 남편에게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와달라는 부탁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베트남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남편들의 성향이 그렇다는 것을 듣고, 이제는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었으며 '한국남자는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적응해 가고 있다.

(베트남 남자)다 도와줘요. 음식도 다 해주는데.. 여기는 한국남자잖아요? (중략) 다 안도와 준대요. 한국 남자 다 그렇대요. 싸우기도 하고 안 그런 집도 있고.. 한국 남자 다 그렇다고..(비엣1, 411-415)

한편, 갈등에 직면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스스로 이를 관리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적응하고 있었다. 갈등상황에서 자신은 힘들지만 남편이나 시모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고 '자기 보고 사는 것 아니고 부모님 보고 사는 거야'라고 하는 등 스스로의 심적 강화를 통한 '조절'을 시도하는 것도 엿볼 수 있었다.

어머니랑 저랑 범띠 같으니까 잘 맞아요. 시아버지는 더 해요. 친아빠처럼 지내요. 순간순간 마음 다치면 시부모님이 약 다 줬어요. 애기 아빠보고 "나 미안한 거 아는데, 나는 자기 보고 사는 거 아니고 부모님 보고 사는 거야" 부모님이 너무 잘 해 주니까 할 말이 없어요.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밥, 반찬 어머니가 다 해주고, 빨래도 다 합니다. 저는 완전히 아버지님 머느리 되는 거였어요. 시집와서 한 번도 돈 버는 것도 없었어요. 시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 받고 쓰는 거예요. 신랑은 돈 벌어도 한 달에 12일만 일하고 하루에 많이 벌면 5만원 3만원, 그렇게 저에게 줘요. 저도 기저귀 분유 사고해야 하니까, 그 돈으로 다 못해요. 여기 같이 사니까 되지, 애기 아빠는 술값이랑 다른 것 또 써요.(비엣4, 51)

한편, 싸울 때는 '도망'을 꿈꿔보지만 그동안 한국말도 많이 늘었고 아기도 컸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맞기고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이가 대부분이다. 나아가 어머니가 화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 있었으며, '타협'을 통한 자신의 요구사항 주장과 자신만의 돌파구를 스스로 찾아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왕에 한국에 왔으면 빨리 배우고 적응하여 대학에도 가고 한국여성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포부를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 했어요. '우리 경상남도 남편이 다 그래. 일도 못해줘, 좋은 말도 안해' 라구요. 좋은 거, 부인 사랑해요 하고, 일 갔다 오면 선물 사줘, 꽃 사줘 그런 거 안 해, 경상남도 남자. (중략) 아이들 크면 돈도 많이 필요해. 아끼고 돈 벌어서 한국 여자들처럼 잘 살려고 해 (비엣5, 1214)

(2) 남편

별다른 준비 없이 국제결혼을 감행한 남편들은 2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이어나며 아내의 적응과 가

정 이탈을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유를 구속하거나 일방적인 한국문화를 강요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 변화가 우선되어야함을 절실히 깨닫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태도도 결혼생활의 햇수가 지나면서 많이 바뀌고 있다. 모든 일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강압적인 어머니에게 아내가 순종하기만을 바라다가 갈등의 극단에 다다른 상황에 직면하여서야 어머니와 등지더라도 분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가 분가를 해야... 분가를 해도 이젠 늦은 거 같아요. 좀 빨리 해 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우유부단하게 이쪽으로는 00이 엄마생각, 막상 하려면 엄마가 안됐고,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우유부단하게 했지. 빨리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근데 지금은 분가 하려고 생각중입니다.(남편1, 602)

이는 지금까지 장남에게 강요된 '효'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충실한 가정을 꾸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더불어 어머니가 며느리를 '가사도우미' 정도의 종속된 위치에 머무르게 해서는 가족갈등의 해결에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는 내가 애를 데리고 와서야 씨바 베트남 사람들과 이렇노' 하면서 했는데, 요새는 생각을 어떻게 하나면 한국 신랑이고 시어머니들이 조금만 외국인 여성들한테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주면 애들이 나쁜 생각을 안 할 텐데, 요즘은 내가 그래요, 신랑하고 시어머니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여성들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맞잖아요?(남편2, 327)

아울러 자신들도 처음에 가사노동은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다'라면서 퇴박을 놓았지만, 베트남에 방문하여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본 후, 문화차이를 알게 되고 신기하다는 생각까지 하였다. 그런 후에 자신이 변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그들의 안고 있는 숙제처럼 보였다.

그런 거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베트남에서부터 그렇게 배워오니까 그런가 봐요. 내가 보니까 여자는 절대 음식을 안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다 하더라고요, 나보고 보라 이거예요, 하라 이건데 한국은 안한다. 근데 베트남은 보니까 다들 안하고 앉았었고, 형부, 남동생, 아버지, 남자들이 가서 해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게 신기한 거죠. 문화의 차이점이고, (중략) 본인도 그걸 아는거죠,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좀 변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알고는 있지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게.(남편7, 596)

(3)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일방적인 한국문화로의 동화를 강요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며느리가 미숙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갈등을 일으킬지라도, 궁극적인 내면에는 '빨리 한국생활에 적응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이었다. 따라서 오랫동안 혼자서 생활해온 아들이 이제는 아내와 가족을 이루고 오순도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며 부부갈등을 중재하기도 하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일상적인 가사노동, 남편·시어른 봉양, 출산·양육 등 여성의 일은 당연히 잘 해내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갈등과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아무진 것, 사람 나름'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위안삼고 있다. 어느 국가 출신이냐를 떠나 한 인간으로서 며느리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변화는 느리지만, 갈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며느리의 문화와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수준에 맞는 역할수행과 변화를 기대하고 강요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먼저 '마음을 비우기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의 표현이 더 크게 드러난 것이라고 이해된다.

마음을 비우고, 아들 혼자 사는 걸 어찌 보겠습니까? 어찌든 마음 맞춰서 자기를 헤어지지 않고 살아야지 그 마음 밖에 없어요.(시모6, 208)

5. 논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문화 간의 가족결합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차이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가족의 갈등은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피'나 '무시'의 방법으로 관리되기도 하면서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적응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가족구성원들이 갈등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갈등해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이들의 갈등과 문화적응과정은 아래와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맥락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의사소통맥락의 정도이다(정진경·양계민, 2004). 한건수(2006, p217)의 "외국인 아내와 며느리에게서 한국인 여성에게서 기대되는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이 '고맥락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가족이 지니는 문화적 특성을 이미 며느리가 이해할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하에, 상세한 설명 없이 상대방에게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생활방식의 적응에 시간이 걸림에도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고집센 여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는 게으른 사람'으로 오해하게 되고 그러한 부정적 인식이 갈등을 증폭시켜 나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맥락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 갈등과정이며 문화적응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후 며느리가 출산하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상호공감대가 넓어진 시기에 접어들면 오해의 소지는 줄어들며 이에 따라 갈등발생의 여지도 좁아지게 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한 고맥락문화뿐만 아니라 대다수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지역에 거주하

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투리로 인한 의사소통의 애로와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두텁게 잔존하는 경우에는 적응에 부가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화에서 통합으로 나아가려는 과정이다. Berry(2005)는 문화적응전략 중 '동화(assimilation)'의 경우에 문화 갈등이 일정정도 발생하며 이것은 문화적응 중인 사람이 주류집단의 행동규범에 따름으로써 대부분 해결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시어머니가 강조하는 한국문화로의 '동화(assimilation)'를 받아들이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자국문화를 유지하며 자녀에게 전수까지 생각하는 '통합(integration)'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Bourhis, Perreault and Senecal(1997)의 소수민족문화의 중요한 관점은 '문화유지'이며, 다수집단의 적응에 관한 중요관점은 '문화적응(변용)'이라는 두 가지의 기초적인 태도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남편의 경우에는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인정과 학습에의 동기가 부여되는 과정이고, 시어머니에게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일정 정도 자신의 요구를 포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나름'이라는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과정이다. 베트남에서 여성의 역할은 남편과 동등하므로 베트남여성은 한국남성이 기대하듯 순종적인 여성이 아니며, 가부장적인 의식을 가진 한국남성을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고 밝힌 하밍타이(2005)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도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힘들어 하였다. 특히 서울충청지역보다 부산경남지역 여성들은 한결같이 남편의 가부장성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한국어교실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을 통해 지역적 공통성을 발견하고 나서야 포기에 가까운 인정과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남편의 의식변화와 관련하여, 베트남 방문이 부정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김이선 외(2006)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처가에 머물면서 아내의 생각과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아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자신의 변화를 도모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표본을 선택한 때문인지, 아니면 자료수집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내용의 차이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구성원들은 의사소통, 가부장적 가족문화, 그리고 일상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지만, 이들은 갈등양상과 대상에 따라 적절한 갈등대처방법을 찾고 갈등을 관리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결혼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정 및 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남편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시어머니는 순위 사람으로서 애정을 갖고 언어와 한국문화를 전수하려 하였지만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분가를 허용한다든지, 자식부부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심

리적으로 포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갈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족으로서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할 수 있는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초점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실제로도 가족 단위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제공하는 여러 실태조사나 정책설계에 있어 부처간 연계도 필요하지만 가족 단위에서 볼 때 각종 정책과 서비스가 누락과 불균형이 없는지, 가족구성원간의 역동적인 평형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투리나 지역별로 특징적인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와 양면체계와의 충돌사례를 충분히 드러내어 이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방법론적으로는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갈등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가족관계 상호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조망한 우리나라 최초의 질적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을 유지하면서 갈등을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위기에 직면하거나 이혼으로 갈등이 해소된 사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어, 연구대상에 자녀를 포함하거나 이혼가정에서의 갈등의 변곡점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권오실. 1995. “부부간의 갈등 정도와 갈등관리 방법과의 관계분석-학령기 이전 자녀를 둔 부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3-28.
- 김양희. 1986. “한국도시인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부인의 표본조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영희·정선영. 2007.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65-82.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이선·김민정·한진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 노영주·서동인·원효종 역. 1995.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응집성과 변화. Galvin, K. and Brommel, B.

Family Communication. 서울: 하우.

- 노하나. 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문옥희. 2004. 『외국인 여성 실태조사 및 사회지지체계 조사결과 분석내용.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광주여성의 전화부설 광주가정폭력상담소』.
- 법무부. 2009. “국적별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http://www.immigration.go.kr/HP/HP/TIMM/imm_06/imm_2009_11.jsp
- 변화순·장혜경·김혜영·전영주·정재동·구선영. 2005. 『가족·성별갈등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서소영. 2006. 『다문화 가정의 복지욕구조사』.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복지욕구조사 토론회 자료집. 창원 여성의 전화.
-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손은록. 2004.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과 갈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신란희. 2005. “국제결혼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유명기.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노동문화 논집』 13: 69-90.
- 유인선. 1989. “베트남 전통가족제도와 부부관계”. 『아시아문화』. 5: 165-182.
- 윤형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이선미·전귀연. 2005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갈등대처방식이의 상호작용패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93-107.
-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189-219.
- 이금연. 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국제결혼의 이해를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전진상복지관.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임안나. 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결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정연식·황영주. 2004. “사회주의 혁명과 여성 지위 변화: 베트남 사례”. 『21세기 정치학회보』 14(2): 189-210.
- 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 최금해. 2006.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최병욱. 2006. “전통시대 베트남여성의 교역활동-총력에서 대양으로-”. 『동양사학연구』 93: 149-174.
- 통계청. 2007. “혼인통계.” <http://www.nso.go.kr>
- _____. 2008. “혼인통계” <http://www.nso.go.kr>
- 하밍타잉.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하 순(2000). “메콩델타-역동적 문화와 역사의 세계”. 『국제지역연구』 4(2): 81-112.

- 한국염. 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움자료, 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Berry, J.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findings*, edited by A. Padilla. Boulder: Westview.
- _____.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 Bourhis, R., Moise, L., Perreault, S., and Senecal, S. 1997. “Towards and 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2: 369-386.
- Gottman, J. 1994. *Why Marriage Succeed or Fail*. N.Y.: Simon and Schuster.
- Gudykunst, W. and Hammer, K. 1988. “Strangers and hosts: An uncertainty reduction based theory of intercultural adaptation.” pp. 106-139, in *Cross-cultural Adaptation: Current Approaches*, edited by Y. Kim and W. Gudykunst. Newbury Park, CA: Sage.
- Gudykunst, W. and Matumoto, Y. 1996. “Cross-cultural variability of communic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p. 19-56, in *Communication in personal relationships across cultures*, edited by W. Gudykunst and S. Ting-Toomey. Thousand Oaks, CA: Sage
- Killmann, R. and Kenneth, T. 1975. “Interpersonal Conflict Handling Behavior as Reflectons of Jungian Personality Dimensions.” *Psychological Reports* 37: 971-980.
- LeVin, R. 1986. *Properties of Culture: An Ethnographic View.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isol N., Antonio J., Maria G. and Pablo P. 2007. “Acculturation strategies and attitude according to the Relative Acculturation Extended Model (RAEM): The perspective of natives versus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1: 67-86
- Sprey, J. 1979. “Conflict theory and the study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 130-159. i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edited by W. Burr, R. Hill, F. Nye and I. Reiss. New York: The Free Press.

Conflict Process According to the Acculturation of the Vietnamese Migrated Women's Family in Korea

Jeong, Hea-Young

(Inje University)

Kim, Jin-Woo

(Duksung Wome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Vietnamese migrated women's family members understand cultural differences and to review the causes and types of family conflict during the acculturation. To do this, the researcher interviewed 10 cases which consist of three family members in a case: a Vietnamese migrated woman, her husband and mother in law.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y are three main factors such as different ways to communicate, patriarchic ways of thinking and different ways of daily life which have caused family conflict. The conflict caused has been reinforced by anger and frustration against other family members. However, based on understanding on the preciousness of family and importance of inter-respect, it is still on going to find out the moderate way to manage family conflict among their family members. This study has practical and methodological significances. At policy and practice level, this research stresses on the significance of focusing on the family as a unit to be approached for policy and practice intervention. As the methodological aspect, the research tried to search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members in the Vietnamese migrated women's family by including not only a migrated woman but also her husband and mother in law. However, there is a limit as it only focuses on cases which family members could manage the family conflict.

Key words: Vietnamese Migrated Women, Acculturation, Conflict Process, Qualitative Research

[논문 접수일: 09. 11. 04, 심사일: 09. 11. 17(12.16), 게재 확정일: 09. 12. 23]